귀성길부터 차례상까지…'명절앱' 진수성찬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한 추석

국민 내비 '김기사'로 고생길 피하고
아이들과 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 판

초보 며느리라면 '차례상 앱'은 필수
친척 호칭 애매할땐 '패밀리맵' 유용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추석 고향길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다. 장시간 운전을 피할 길이 없다.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 아이들 보는 일도 여간 고달프지 않다. 여기에 초보 며느리라면 음식 장만과 차례상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잘 이용하면 교통지옥도 피하고 울고 불고 떼쓰는 아이도 조용히 만들 수 있다. 물론 차례상을 똑 부러지게 차리는 며느리도 될 수 있다.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내비앱 중 '국민 내비'란 애칭을 가진 '김기사 내비'.

'추석 귀성길도 으뜸 도우미는 스마트폰.' 이제는 고향 가는 길이나 차례상 차릴 때도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왼쪽부터)귀성길을 도와줄 앱 '실시간 교통', 명절 분위기를 돋굴 게임 '신윷놀이', 차례상 차림을 돕는 '차례상 차리기', 친척들의 호칭과 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 '패밀리맵'.

●"김기사, 고향 앞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80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추성 귀성객은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귀성객 중 81.5%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나 추석 고속도로 정체 현상은 극심할 전망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담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은 'T맵', KT는 '올래 내비', LG유플러스는 'U+ 내비'를 서비스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김기사 내비'를 주목하자.

이미 300만 명이 이용해 '국민 내비'라고 불리는 만큼 기능이 뛰어나다. 주의할 점은 첫 구동 시에는 용량이 큰 지도 데이터(130MB)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지역에 있어야 데이터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교통 정체를 미리 알려주는 앱도 유용하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 앱이다. 고속도로 전체의 소통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오늘은 뽀로로보단 윷놀이"

어린 아이를 둔 부모라면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차가 밀리는데 아이까지 칭얼대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지치고 만다.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면 된다.

스마트폰 민속놀이 게임 중 눈에 띄는 앱은 윷놀이 앱. 앱 장터에는 다양한 무료 윷놀이 앱이 있다. 그 중에서 '신윷놀이'는 세계 위인들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 교육적이다.

'T스토어'에서는 고리던지기와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두 게임 모두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해 정해진 곳에 물체를 던지는 방식이다.

●추석날 사랑받는 며느리 되기

고향에 도착하면 이제 편하게 명절을 즐기면 된다. 하지만 초보 며느리들은 시댁 어른들을 뵙고 차례상 차리는 일에 걱정부터 앞선다. 센스 있는 며느리라면 이럴 때 명절 앱을 이용해 보자.

우선 처음 만나는 친척들의 호칭을 모른다면 '패밀리맵'이 유용하다. 이 앱은 친인척 간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알려준다. 가계도에서 친인척의 생일 등 기념일을 등록해 알려주는 알람기능도 제공한다.

'홍동백서'나 '어동육서' 같은 차례상 차리기가 부담스럽다면 상을 5개 열로 나눠 차근차근 차림 방법을 알려주는 '차례상 차리기' 앱을 추천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구글 "특허 소송엔 혁신 없다"…애플과 선긋기

에릭 슈미트 회장 '넥서스7' 출시 방한
삼성 등 안드로이드 진영과 결속 강화

"구글은 혁신을 대표할 뿐, 특허 소송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한국을 찾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사진)이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넥서스7'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 간 특허 공방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슈미트 회장은 우선 애플에 대해 "거의 매일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좋은 파트너이자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애플이 제기하는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는 모바일 특허만 20만 개가 넘고 이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며 "애플 이전에도 선행기술은 많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슈미트 회장은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약하고 결국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구글은 혁신을 대표할 뿐, 특허 소송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넥서스7' 10월 중순부터 구매 가능

에릭 슈미트 회장의 이번 한국 방문 역시 애플의 특허 공세가 더욱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와 선긋기에 나섰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슈미트 회장은 방한 기간 중에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 등 안드로이드 진영 파트너들을 만날 계획이다.

슈미트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제조사와 콘텐츠 기업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많이 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빠르게 스마트폰이 활성화 된 나라가 없다"며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십분 활용해 갤럭시 노트에서부터 갤럭시 넥서스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탄생시켰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재 매일 안드로이드 기기 130만 대가 판매 될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며 "한국의 파트너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의 첫 레퍼런스 태블릿PC인 '넥서스7' 16GB 모델을 29만9000원에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롯데마트와 하이마트 매장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0월 중순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구글은 넥서스7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구글플레이 무비' 서비스도 내놨다. 김명근 기자

아마존 '앱스토어' 상표권 소송 애플과 법정 공방

아마존이 '앱스토어'(app store)라는 명칭의 사용을 문제 삼은 애플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미국 연방법원 판사에게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아마존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마존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앱스토어라는 용어를 오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앱스토어라는 명칭은 이미 보편화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 청문회는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LGU+, 야구게임 '워너뱃'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LG유플러스(U+)는 인기 실시간 네트워크 야구배틀 게임인 '워너뱃(Wannabat)'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해 27일 이동통신 3사의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통해 출시했다. 워너뱃은 스마트폰 게임 개발업체 비투소프트가 개발해 7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공개한 게임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LG유플러스는 비투소프트와 공동으로 이 게임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해 U+앱마켓·올레마켓·T스토어 등 이통 3사의 앱 장터에 내놓았다. 워너뱃은 남미의 광장, 해변, 초원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대 1 대전 방식의 길거리야구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3D 그래픽이 특징이다.

KT '올레스쿨' 외환카드로 결제시 월 2만원 할인

KT는 모바일 학습 서비스인 '올레스쿨' 요금을 외환카드로 결제하는 가입자에게 월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레스쿨 리워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올레스쿨 리워드에 가입하고 올레스쿨 외환카드를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월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레스쿨 학습 성과가 상위 45% 안에 들면 월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올레스쿨 리워드 가입자는 월정액 5000원인 유료 상품 '올레스쿨 프리미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연예	송해 "고 김인협 악단장, 진작 요양 보낼걸…"
	티아라 함은정, 드라마 제작사 상대 위약금 소송
	여성듀오 15&의 '천재소녀' 누군가 봤더니
스포츠	'첫 공격포인트' 박지성, 공수 안정…홈팬 '눈도장'
	리버풀, 손흥민 영입위해 145억 원 준비
	가가와, 이적 후 처음으로 관중석 신세
사회	'여자 환자 생식기 사진' 등 환자정보 23만 건 유출
	'줄줄이 기각'…곽노현 유죄 판결 진짜 이유는?
	검찰, 통영 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구형
경제	웅진 법정관리, 윤석금 회장의 승부수인가, 꼼수인가?
	롯데, 신세계 인천점 통째로 삼키나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금 월 19만8000원
생활 문화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내달 6일 개통
	전국서 가장 비싼 전주비빔밥
	중부, 28일 빗방울…벼락·돌풍 주의

인기 동영상

돌고래 출산